광주·전남 대학탐방

❷ 조선이공대학

실무중심 현장밀착 맞춤교육
'量보다 質'…대기업 취업 쑥쑥

'대기업 취업률 최고'란 슬로건을 내걸고 신입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선이공대학은 오는 11월2일까지 수시 2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선박해양·기계과, 하이테크 CAD/CAM과, 자동차과, 메카트로닉스과, 전기과, 광전자정보과, 정보통신과, 사이버보안과, 생명환경화공과, 건축과, 토목건설과, 실내건축디자인과, 보건의료정보과, 식품영양조리과학과, 뷰티아트과, 사회복지과, 특수전과, 해양경찰과, 프랜차이즈서비스창업과, 시각영상디자인과, 레저스포츠과 등 21개이다.

'대기업 취업률 최고'란 슬로건을 내걸고 신입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선이공대학은 오는 11월2일까지 수시 2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선박해양·기계과, 하이테크 CAD/CAM과, 자동차과, 메카트로닉스과, 전기과, 광전자정보과, 정보통신과, 사이버보안과, 생명환경화공과, 건축과, 토목건설과, 실내건축디자인과, 보건의료정보과, 식품영양조리과학과, 뷰티아트과, 사회복지과, 특수전과, 해양경찰과, 프랜차이즈서비스창업과, 시각영상디자인과, 레저스포츠과 등 21개이다.

이번 수시전형은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으며, 합격자 전원에게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일반전형 외에도 헌혈 5회 이상 참여자나 고교졸업 후 3년 경과자, 체육특기자 등 이색경력을 가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있어 선택의 폭도 다양하다.

조선이공대학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부문에서도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같이 대외적으로 전문대학으로서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조선이공대는 산업현장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취업률 제고는 기본이고, 취업의 질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조선이공대학은 취업을 앞둔 각 학생의 적성과 전문성을 고려, 꾸준한 산학연계 실습을 통해서 언제라도 현장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취업전담 교수를 위촉해 지속적인 1 : 1 맞춤식 진로상담 및 1인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목표한 기업에 대한 정보와 전반적인 취업준비에 대해 조율을 하면서 높은 취업의 장벽을 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조선이공대학은 청년실업이 30만명에 육박하는 취업대란과 지속되는 사회적 경제난 속에서도 LG이노텍(57명), LG디스플레이(35명), 삼성전자(23명), 삼성LED(10명), 호남석유화학(10명)등과 같은 대기업을 비롯 한국토지공사, 광주시 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에 2010년 올 상반기에만 241명의 취업자를 배출했다. 하반기 대기업 채용이 진행되는 있어 취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대기업 취업률 소식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4년제 졸업생 20여명이 대기업취업을 위해서 조선이공대에 다시 입학한 것을 비롯해 2011학년도 수시지원자 가운데 4년제 졸업생 수가 현저하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별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졸업자 2명 중 1명은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취업의 고민에 빠진 4년제 졸업생들이 실무중심의 현장밀착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취업률도 높은 조선이공대학에 메리트를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이공대학은 급격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대비해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맞춤대학으로서 기틀을 다지는 한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 이에 맞춰 지속적이고 과감한 학과개편을 해왔다. 그 결과 높은 취업률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수진 형성과 더불어 교육의 질 또한 향상돼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광주전남부분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조선이공대 관계자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의 변화를 파악해 수요가 없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한 반면 향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 특수전과, 해양경찰학과, 프랜차이즈학과 등 이색학과를 신설했다"며 "특히 사회흐름을 반영한 프랜차이즈학과는 지난해 신설해 조기에 지원이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레저스포츠학과 학생들이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수업을 받고 있다.

EU 교육교류협력사업
순천대·고려대 등 선정

순천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2011년도 EU-ICI ECP(선진사업국과의 협력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EU-ICI 교육협력사업은 유럽 연합이 선진 산업국인 한국·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과 추진해 온 협력 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교직원교류, 학점인정 및 상호 학위인정 등을 위한 교육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대·충북대·고려대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핀란드의 센트럴 오스트로보트니아 대학 등 유럽연합(EU)의 4개 대학과 세계화교육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진행한다. 순천대는 이번 EU-ICI 교육협력사업의 선정으로 13명의 학생을 5개월 동안 유럽의 대학교에 파견하며, 유럽의 대학교는 11명의 학생을 순천대학교로 파견한다. 교환학생들은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언어 및 문화 교육, 글로벌교육리더 교육, 현장교육실습 등에 참여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1일 준공식을 가진 목포 덕인고등학교 전경. 이 건물은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갖춘 60개 교실과 학생전용 복지공간 등을 친환경으로 설계해 신축됐다. 〈목포 덕인고 제공〉

목포 덕인고 친환경 校舍 신축

교실 60개 규모…태양광 에너지 시설 등 갖춰

목포 덕인고등학교가 최첨단 친환경 학습환경을 갖춘 교사〈사진〉를 신축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학교법인 덕인학원(이사장 박춘식)은 21일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 덕인고등학교(교장 김무순) 우정관에서 200여명의 내외빈과 교직원,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준공식을 열었다.

학교 건물(연면적 5941㎡·4층)에는 60개 교실이 마련돼 있으며, 냉·난방 시설은 물론 비데를 갖춘 화장실, 학생전용 샤워시설 등이 있다.

특히 학교에는 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위해 첨단 시청각 교재를 갖춘 영어교과 전용교실도 배치됐다. 교과부가 덕인고를 2011학년도 영어교과 교실제 선도학교로 지정함에 따라 한차원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수학전용교실, 과학전용교실은 각종 실험 실습이 가능한 교재와 환경을 갖춰 공부는 물론 각종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데도 손색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이 건물은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 에코(Eco)시스템으로 설계돼 실내조명과 각종 전기설비 등을 자체 에너지로 가동할 수 있다.

김무순 교장은 "덕인학원 설립 62주년을 맞는 해에 새로운 학습공간을 마련하게 돼 뜻 깊다"며 "서남권 인재육성의 요람이라는 학교의 명성을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보문고, 日센다이육영고와 자매결연

보문고등학교가 학생 어학연수와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 고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보문고등학교(교장 정승로)는 21일 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일본 센다이시에 있는 센다이육영고등학교와 어학 연수· 문화 교류 등을 골자로 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사진〉 결연식에는 센다이육영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인 가또다께히꼬(加藤雄彦)씨 등이 참석했다.

두 학교는 향후 학기와 방학 중에 학생, 교사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보문고는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 고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데 이어 UIW대학과 고교-대학 연계학점 프로그램(AP)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대 '다독다독' 독서토론 프로그램 인기

전남대가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토론 공동체를 운영, 관심을 끌고 있다.

다독다독(多讀多督)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학생은 책을 많이 읽고, 교수는 학생을 두루 살펴 지도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교수와 학부생 4~5명이 그룹을 만들어 2주에 한차례 이상, 한 학기 최소 4회 이상 독서와 토론 등을 하게 된다. 교수 311명에 학부생 1368명 등 모두 1천679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대학 추천 도서 중 한 권 이상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소설, 수필, 자기계발서, 철학, 경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택한다.

대학은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서 지원금, 독서 토론 지원비, 문학기행 참여 기회, 우수 그룹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일 고교생 13년째 '우정 한마당'

장성고-쇼후주꾸고 교류

장성고에서 한·일 학생들이 우정의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장성고등학교(교장 반옥진)는 21일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아오모리현 쇼후주꾸 고교 2학년 32명을 초청해 학교 체육관과 교정에서 교류 연주회를 가졌다. 이 연주회는 올해로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일 학생들의 교류 무대다.

행사에서 쇼후주꾸 학생들은 만돌린으로 '후니쿠리 후니쿠라', '폭풍의 언덕' 등 친숙한 서양음악을 들려줬다. 이들은 '과수원길', '아리랑' 등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화답에 나선 장성고 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배운 고전기타를 연주하고, 사물놀이·모듬북 공연을 펼쳤다. 이들은 행사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한데 어우러져 강강술래를 하는 등 우의를 다졌다.

반옥진 교장은 "일본 학생들이 남도의 따뜻한 정과 풍광을 가슴에 담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알찬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장성고 학생들이 21일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일본 쇼후주꾸 고교생들과의 교류 연주회에서 사물놀이·상모돌리기 공연 등을 선보이고 있다. 〈장성고 제공〉